

도민만 바라보는 도지사..?

이정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우리는 제2공항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공항 만드는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도민들을 설득시키라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면 도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지사가 우리 도민들의 대표인니까? 도민들의 의견을 잘 하나로 모아 나아가려는 게 도지사입니다.

원희룡 도지사 출마할 때 관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도민들의 뜻이 어디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눈물이 나지 않도록 같이 대화해야 합니다.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공항인프라를 확장하는 용역은 처음부터 특정한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장 할거나, 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만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디에 할 건지 결정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성산포로 결정을 해 반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항에 들어가지 않은 인근에 땅값 오를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자기 이익 오는 사람들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주도의 가치를 생각하고, 지금 있는 공항, 조금 불편해도 저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거죠.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사설하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것입니다.

관광객 많이 오는 것 좋습니까?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관광객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교통문제 생각해 보면 제주도에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도지사는 자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왜 정반대의 길을 갑니까? 아무리 제주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도민들이 반대하고, 도민들이 생각해 달라고 하면 자기의 의견을 접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뜻이 찬성으로 나오면 하고, 반대로 나오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지사가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상도민회의로 모였습니다. 100여 개 단체가 모여, 많은 것들이 우리가 힘을 같이하는 연대. 동지들의 힘이 같이 모였습니다. 제주를 그냥 놔두고,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제주를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제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주세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의 소리로는 할 수 없지만 돌과 돌이 모여서 커다란 함성이 되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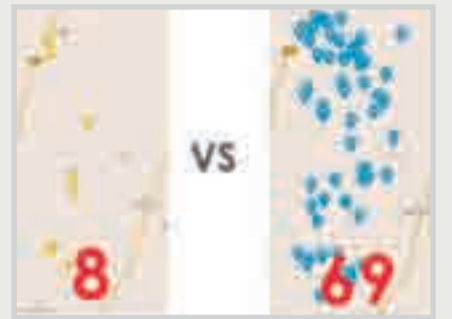
- 2019년 8월 13일 제2공항항행저지비상도민회의의 출범식 발원 중 -



숨골을 막는다? > 숨고망을 막는다!!

● 8 VS 69

제2공항 예정지에서 국토부가 찾았다는 숨골 8개와 동굴숨골조사단이 찾은 숨골 69개, 왜 이런 차이가? 숨골을 69개 찾았다는 동굴숨골조사단의 발표에 국토부 용역을 담당했던 성명 미상의 전문가는 '숨아지가 빠져야 숨골이다'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 정작 국토부가 찾은 숨골은 고양이도 못 들어 가겠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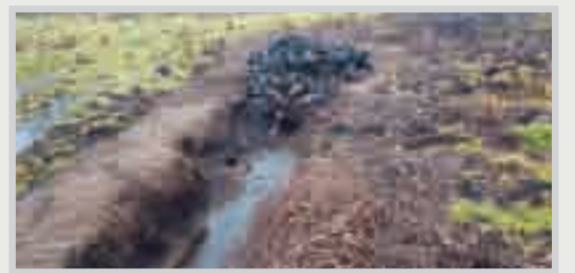
● 숨골은 숨고망(구멍)이다!!



제주의 동서쪽은 하천이 없는 대신에 곳자알과 동굴, 숨골이 빗물을 지하수로 함양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숨골은 문화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반채움(퇴매우기 공법) 등으로 지반보강이 가능"하다고 해,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무지함을 심각하게 드러냄.

● 숨골을 막으면 숨고망이 막힌다!!

250만평의 예정지에 무수히 많은 숨골을 막으면 지하수 고갈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지금도 개발로 인한 불투수층이 증가해서 침수피해가 큰 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국토부와 국토부 용역만 몰라!!



제주섬 숨고망 막는 제2공항 절대 안돼!!

활동 이모저모

- 7월 1일 용천수 살림프로젝트: 대정, 안덕 용천수 제2공항 반대투쟁대회 대표자 집행위 연석회의
- 7월 2일 생태인내지양성교육: 해양조간대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준비간담회
- 7월 3일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준비간담회
- 7월 5일 용천수 살림프로젝트: 2차준건회의
- 7월 7일 생태계서비스 현장평가(홍영철 공동대표)
- 7월 8일 생태계서비스 조사결과 공유 대상지 선정
- 7월 9일 훼손오염 모니터링(새별오름) 2019생명평화대행진 기자회견 제2공항전반환경영향평가 관련 기자회견
- 7월 10일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사무차회의
- 7월 11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하계워크숍 1일차
- 7월 12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하계워크숍 2일차
- 7월 15일 제2공항 숨골: 동굴조사 / 장이시사회 용천수 살림프로젝트(조천 용천수)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물찾오름, 문석이오름 휴식센터 모니터링
- 7월 17일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사무차회의 / 제2공항 반대도민행동 대표자 회의
- 7월 18일 제2공항 숨골: 동굴 조사 워크숍
- 7월 19일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회의 /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점검회의
- 7월 22일 탐라생태인내지 양성교육: 곤충의 한살이 KCTV 훼손오염관련 촬영감독팀장
- 7월 23일 제2공항건강행복지지와 공론화를 위한 연대기구 준비회의
- 7월 24일 제2공항 동굴조사 / 제2공항 반대도민행동 대표자 회의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사무차회의 사회적 대화 제주단체모임 / 조천, 습지도시아카데미 강의김홍구 팀장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제주시 정신건강센터 만장굴기행
- 7월 25일 훼손오염 모니터링(농논이오름)
- 7월 26일 제2공항 숨골: 동굴조사
- 7월 27일 한라생태길잡이: 한라생태학교 1일차 굴러온 돌
- 7월 28일 한라생태길잡이: 한라생태학교 2일차 굴러온 돌
- 7월 29일 제주생명평화대행진 1일차
- 7월 30일 제주생명평화대행진 2일차
- 7월 31일 제주생명평화대행진 3일차 / 용천수 살림 프로젝트(대정·안덕 용천수)

[성명] 제주에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닌 '공원'(8.14)



제주도에는 지금 미분양 주택이 1,200여 채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공공인대주택 건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는 제주에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닌 공원이라며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심의 허파인 도시공원 지킬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동굴·숨골조사(7월8일)



제2공항 예정지의 동굴·숨골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더위가 찾아든 7,8월. 무더위에도 이랑곳하지 않고 제2공항 동굴, 숨골 조사팀은 중무장한 채, 동굴과 숨골을 찾아 제2공항 예정지 동굴, 숲속, 마을 이곳저곳을 조사했습니다. 열정 하나로, 더운 날씨에도 숨고망을 찾기에 함께한 자원활동가 선생님들, 당신이 진정한 제주지킴이!!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7.29~8.3)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5박6일 일정으로 강장에서 성산을 지나, 제주시까지 행진 후 범국민문화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단체 활동가들은 식사팀에 결합해서 밥을 짓고, 감자·오이·단호박을 썰고 깎고, 닭을 삶았습니다. 8월2일 단체집중일엔 구좌에서 조천까지 행진에 함께했는데, 식사팀과 단체집중일에 함께해준 진리란, 현향미, 이길주, 김영숙, 고기현, 강석반,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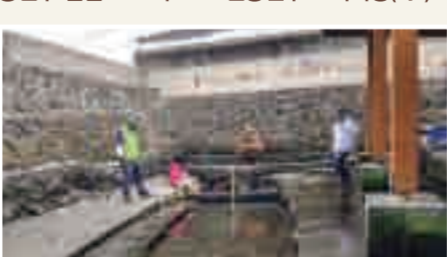
숙이, 고재량, 문영포, 김유진, 원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훼손오염 모니터링: 용논이오름(8.19)



3월부터 시작된 훼손오염 모니터링 한 여름임에도 많은 탐방객들이 용논이오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1시간에 102명. 오름 정상에는 마치 작은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니터링 갈 때 마다 점점 훼손이 가속화 모습에 안타까움만 더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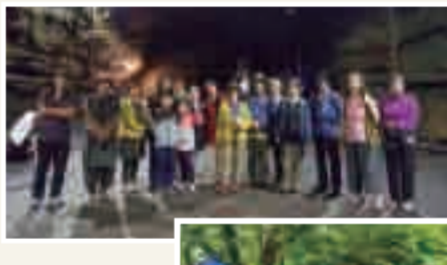
용천수 살림 프로젝트: 조천용천수 모니터링(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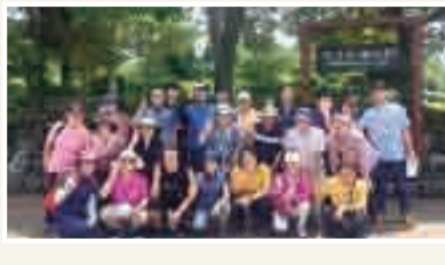
더위가 한창인 8월 조천 용천수 수원, 수온 측정 모니터링을 위해 찾은 용천수에는 근처 주민들이 더위를 식히며 쉬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종산간에 비가 와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용천수 모니터링 결과 7월 보다 수원 수온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탐라생태인내지 양성교육: 곤충의 한살이(7/22), 지질공원 만장굴(8/12)

6월부터 탐라생태인내지 양성교육은 자원활동가 쌤들과 함께하는 현장실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에



는 '곤충의 한살이'를 주제로 곤충에 대해 알아보고, 8월에는 만장굴에서 해설을 들었습니다. 한층 성장해 가는 생태인내지 쌤들!! 자랑스럽습니다~!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제주시 정신건강센터 만장굴기행(7.24) 올레 쌤들은 매년 제주시 정신건강센터 프로그램에 결합해 해설 자원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참가자들과 함께 만장굴 기행을 다녀오셨는데, 비번 와중에도 열정과 애정으로 무료 해설에 참여하고 있는 올레 쌤들. 역시, 우리 쌤들은 멋지네요! ++

제18회 한라생태학교(7.27~28)

어느덧 18회를 맞은 장수 초등생 1박2일 여름캠프, 한라생태학교!! 올해는 '굴러온 돌'이라는 주제로 비석 치기, 돌 그림 그리기 등 돌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함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도 놀이를 멈추지 않는 아이들과 한라생태길라잡이 쌤들! 밤에는 쉼돌놀이도 하며, 잊지 못한 여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